

## 징후로서의 여성/혐오와 디아스포라 젠더의 기하학\*

— 이주의 여성화, 이주노동의 가정주부화

소영현\*\*

1. 징후로서의 여성/혐오
2. 탈국경의 일상화, 약탈 체제의 복잡화
3. 비가시화 혹은 분할통치: 내화하는 국경, 분할되는 인종
4. 젠더-계급-인종의 복합적 위계구조와 순도의 계열화
5. 자매애의 불가능성, 내적 격차의 모성 봉합술
6. 결론을 대신하여: 포스트 민주화 시대로의 이행을 위하여

###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국경을 넘는 이주여성의 문제를 한국사회에서 들끓는 여성혐오와 결부시켜 다루었다. 그간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디아스포라를 대상화하는 연구에서 나아가 디아스포라를 국내외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연관해서 다루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디아스포라를 둘러싼 거시적/미시적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감정인 혐오/여성혐오에 주목했다. 국경을 넘는 이주는 자본의 전 지구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며, 이주의 여성화, 이주의 가정주부화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국에서도 이주/여성성은 대개 한국사회에서 해체된 가족을 봉합하는 역할을 떠맡거나 가

---

\* 이 논문은 2008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A00003)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도맡아왔다. 이러한 사정은 이주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불안하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덧붙여 한국 사회에 들끓는 혐오와 여성혐오의 분위기는 이주여성의 위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혐오는 계급적, 젠더적, 인종적 차이로 구축된 위계구조가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만들어지는 사회감정이며, 역사적으로 축적된 감정이라는 점에서 대개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발현된다. 여성혐오의 형태로 가시화되었지만, 혐오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타자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차별의 표출이다. 이러한 디아스포라 감성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금희의 소설 『옥화』나 『노마드』, 영화 〈미씽〉을 통해 한국사회에 등장한 여성혐오를 여성 범주의 내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관습화된 혐오에 사회적 불안을 처리하는 통치술인 인종혐오가 숨겨져 있음을 확인했다.

(주제어: 디아스포라, 감정, 혐오, 여성혐오, 젠더, 이주, 이주노동, 가정주부화, 자매애)

우리는 모두 필연적으로 스스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의 피해자이자 방관자이며, 가해자였다는 점을 기억한다.  
- 고양예고 문창과 졸업생 연대 〈탈선〉, 『게르니카를 회고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타자의 존재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특권적인 망각을 가능케 하는 장 - 미리 망각된 장 - 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망각하고 있는지 -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 는 우리가 말을 하는 바로 그 행위에 의해 비로소 명백해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를 망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말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망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말해야만 한다. 또 그와 같은 망각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사회적, 물질적 여러 조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해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해야만 한다.

- 岡眞理,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 1. 징후로서의 여성/혐오

2015년 5월 17일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성혐오가 말의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적 범죄로 가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공용화장실 이용자 가운데 희생자를 기다리며 잠복한 끝에 ‘여성’을 살해한 이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들끓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라는 규정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의 대결 논리 속에서 은폐되었던 한국사회의 위계와 차별의 면모가 뚜렷하게 가시화된 계기이다. 왜 지금 혐오인가.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가.<sup>1)</sup> 유사 이래 여성혐오가 없었던 시공간을 상상하기 어렵다. 공공연하게 여성은 공적 주체가 아닌 커녕 인간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던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근대 이후 좁혀서는 여성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획득한 시대인 현재에도 여성은 사회를 유지하는 구성적 외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sup>2)</sup> 민주

1) 혐오와 여성혐오, 여성혐오 범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함께 쓰이고 있지만, 혐오는 혐오발언(hate speech)이나 혐오범죄, 증오범죄와 구분되어야 한다. 혐오발언(hate speech)은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은 속성을 갖는 소수자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속성을 이유로 가하는 차별표현”이므로,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폭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師岡康子, 『증오하는 입』, 조승미·이혜진 옮김, 오월의봄, 2015, 84쪽).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법적 규제 논의가 있다. 물론 혐오발언을 두고 모두가 규제를 만능해법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언어의 수행성과 소통성을 고려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경우에는 법적 규제의 역설적 효과를 우려한다(주디스 버틀러, 『혐오 발언』, 유민석 옮김, 알렘, 2016, 88-138쪽).

2) 성적이지 않은 남성 간 유대가 성적인 것을 억압한 남성 사이의 유대이며 호모소셜(homosocial) 속에는 호모섹슈얼(homosexual)한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호모소셜과 호모섹슈얼을 연속체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이브 세즈윅(Eve Sedgwick,

주의의 핵심정신인 평등과 자유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타자에 대한 혐오를 공유하면서 유지된다는 주장이 과도한 것만도 아니다.<sup>3)</sup> 온라인과 SNS 플랫폼상에서 극심한 여성혐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따지자면 그것이 금융자본의 세계화에 의한 한국 남성의 좌절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한국사회의 특수한 현상만도 아니다. 온라인과 SNS 플랫폼상의 담론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 어렵지만 현실로 넘어오면서 폭력의 수위는 대개 낮아진다.<sup>4)</sup> 경제적 조건이 악화되면 사회적 타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증폭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왜 지금 여성혐오가 문제인가를 묻는다면, 우선 체제와 자본이 결합하면서 재편되고 강화되어온 가부장제의 상시적 일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간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속도로 진전된 동시에 여성차별의 강도가 극심해진 상황의 결과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대표적 타자인 여성의 범주가 그리 단일하거나 획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여성 내부의 계급적인 위계나 지역적, 인종적 위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여성혐오가 여성혐오만은 아닌 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sup>5)</sup> 그렇지만 혐오할

*Between Men*, 1985)의 인식에 기대어, 우에노 치즈코는 젠더가 '남성이 아닌 이' 즉 남성이 되지 못한 자인 여자를 배제함으로써 유지되는 경계임을 고발한다. 여성혐오를 근대사회 유지를 위한 필연적 구성물로 보는 우에노 치즈코에 따르면, '범주 폭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혐오 바깥을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上野千鶴子,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31-37, 156쪽.

3) 자크 데리다, 『불량배들』, 이경신 옮김, 휴머니스트, 2003, 131-143쪽.

4) 윤보라, 『일베와 여성혐오』, 『진보평론』 57, 2013; 윤보라, 『온라인 페미니즘』, 『여성이론』 30, 2014;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연구』 15-2, 2015; 윤보라, 『김치녀와 별거벗은 임금님』,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정인경,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연구』 16-1, 2016; 한희정,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한국언론정보학』 75, 2016.

5) "혐오를 '당하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다. 유대인 혐오, 동성애자 혐오, 전라도 혐오,

대상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차원의 사회문제와 한국사회에서 혐오가 대표적인 사회적 타자인 여성에게로 집중되는 현상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 차이를 세심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사회적 타자에 대한 배제의 표현인 혐오 프레임에 휩쓸려 사회적 타자 내부에 놓인 차별적 위계를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여성혐오에 대한 혐오(‘여혐혐’)와 남성혐오(‘남혐’)가 일면으로는 구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짚으며 류진희가 언급했듯, 거울로 되비추며 여성혐오의 혐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들에 조심성 없는 인종혐오가 겹쳐 있음을 외면하기 어렵다.<sup>6)</sup> 강남역 살인 사건을 두고 성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조장하는 것은 ‘여성’의 죽음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남성과 사회 전체이지만<sup>7)</sup>, 한국사회에서 들끓는 혐오 분위기를 여성혐오의 문제로만 봐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는 데에 이 문제의 복잡성이 놓여 있다.

젠더에 대한 정희진의 언급을 빌려 말해보자면, 여성혐오는 “모든 곳에 공기처럼 편재하는 가장 오래된 제도이지만 동시에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편향적인 정치적 산물<sup>8)</sup>이다. 사회적으로 매개된 혐오는 우리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차단하려는 욕구를 반영한다. 오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지만 근본에서 우리와의 분리 불가능성이 불러오는 모종의 투사적 반응이 혐오인 것이

---

장애인 혐오는 있어도 그 반대는 없다.” 말하자면 여성혐오는 “약자’ 일반에 대한 혐오의 다른 버전”이다(문강형준, 『문지마 살인이 아니다』, 『한겨레』, 2016.5.20). 따라서 통칭 여성혐오로 불리지만, 부정적 집합감정인 혐오가 왜 지금 부각되는지, 어떻게 페미니즘과 접속하게 되는지, 무엇이 어떻게 여성혐오인지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류진희, 『촛불 소녀’에서 ‘메갈리안’까지, 2000년대 여성혐오와 인종화를 둘러싸고, 『사이間SAI』 19, 2015, 47-49쪽.

7) 김홍미리, 『‘여성이 죽는다’ 호소에 “같이 문제 풀자” 응답해야』, 『한겨레』, 2016.5.21.

8) 정희진, 『편재하는 남성성, 편재하는 남성성』,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2011, 16쪽.

다.<sup>9)</sup> 계급적, 젠더적, 인종적 차이로 구축된 위계구조에 의해 내적 차별이 극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사회감정인 혐오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집합감정이라는 점에서 대개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발현된다. 반대로 말하면 혐오는 즉각적으로 표현되기보다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사건화될 때에야 포착된다. 혐오를 옳고 그름을 둘러싼 윤리 문제로 손쉽게 환원하기 쉽지 않은 것은 혐오가 자동화된 인식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오인되기 쉽기 때문이다. 집합감정으로서 혐오는 가해와 피해의 구도 속에서 포착되기보다 불쾌하고 불편한 ‘막연한 어떤 것’으로만 감지되며 그런 채로 반복되고 강화되면서 굳은 관습이 되어버린다. 혐오의 위험성과 혐오에 대한 적대적 전선 구축의 최대 난점이 여기에 놓여 있다.

여성혐오를 성별 이분법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자면, 달리 말해, 계급과 인종의 관점 즉 남성 혹은 여성 범주 내부의 차이를 누락한 채 다루자면 역설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성별 이분법 자체다. 여성혐오는 여성의 문제이지만 한국사회의 타자들에게서 변주되고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차별의 표출이자 자연화된 위계구도가 만들어낸 사회문제다.<sup>10)</sup> 미시적 현상으로서의 여성혐오 이면에 은폐된 차별적 위계구조의 중첩성을 비판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글로벌/로컬한 동시대적 맥락에 한국사회의 갈등이 증폭된 사적 맥락을 겹쳐 읽으면서(2, 3장) 한국사회에 등장한 여성혐오의 의미를 여성 범주의 내적 차이와 함께 고려하면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거시적/미시적 시야의 동시적 확보를 위해 글로벌/로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복합체에 대한 고려가 거듭될 필요

9)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239-240, 306-307쪽;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1,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6, 368-377쪽.

10) 가령, 남녀 임금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그냥이지만(박병률, 『남녀 임금격차,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경향신문』, 2015.5.26), 이런 상황이야말로 내면화된 여성혐오의 자연화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속에서 관습화된 혐오에 사회적 불안을 처리하는 통치술로서 인종혐오가 밑그림처럼 덧대어져 있음을 우회적으로나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 탈국경의 일상화, 약탈 체제의 복잡화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로 현 체제를 둘러싼 대안적 상상력이 협소해지면서, 선후 관계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전지구적 자본의 위력은 한국사회에 거세게 몰아쳤고, 한국사회는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렸다. 그것이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위계화의 과정이었음을, 국가, 인종, 젠더, 지역 위계가 만들어내는 복합적 위계화의 과정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것이 폭압적 착취였음을 일상 층위에서 깨닫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기업의) 자유를 무한히 보장하는 (허울뿐인) 신체제가 공공의 영역을 점차 망가뜨린 채 방치해왔음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피할 수 없는 진실로서 직면해야 했다.

현재 유럽에서 시작된 탈세계화 흐름은 새로운 미래로 향한 긍정적 움직임이기보다 자본의 세계적 재편이 야기한 모순이 한계적 국면에 도달했음을 역설한다. 세계화의 주요 수혜국인 주도국에서조차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가 야기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준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금융 자본화의 도져한 흐름을 단숨에 역류시킬 수는 없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세계화와 탈세계화 흐름이 공존하는 예측하기 힘든 혼란의 소용돌이에 예외 없이 휘말리는 중이다.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흐름이 교차하는 중에도, 이주와 이동, 탈국경의 움직임은 여전히 돌이킬 수 없는 경향성을

이루고 있다. 탈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주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더 이상 이주와 이동, 탈국경의 움직임 없는 시공간을 상상하기 어렵다.<sup>11)</sup>

- 1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제국/식민 체제의 재편과 함께 독립국으로의 재/이주와 귀환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난민 지위가 논의되었으며, 이후로 해외 동포들에게 투자수익이나 이중국적을 보장하면서 그들을 정치적,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도 증가했다(케빈 케니, 『디아스포라이즈』, 최영석 옮김, 엘피, 2016, 58-61 쪽). 한편으로 문화의 접면이 만들어내는 혼종성에서 새 시대에 적합한 신인류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하며, 민족과 국가 중심의 근대적 세계인식이 갖는 폭력적 속성이 성찰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전망되기도 한다. 조망적 시야에서 보자면 국민국가의 틀은 약화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합의도 바뀌고 있다. 자본과 결합한 국가가 이해득실을 내세우며 내외국인의 구별 없는 동원과 배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외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역반응으로서 귀속 국적의 강제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자발적이든 아니든 국적을 취소선택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가 사회 저변에서 형성되고 있다. 가령, ‘헬조선/탈조선론이 보여주듯, 국가를 두고 순응하고 적응해야 할 귀속지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 차원의 차별적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취업을 위한 국적 취득/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의 상층부에서 국경 넘어 다른 교육여건을 선택한다는 의미의 이주는 드문 일이 아니다. 동시에 반대급부처럼 지구적 차원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약자에게 사회갈등의 원인을 돌리는 방식으로 체제의 모순이 전치되는 장면들이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가령,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이나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을 두고 표현의 자유, 극단화하는 무차별 테러, 인종 간 갈등이나 외국인 혐오와의 연관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테러 위협의 전 지구적 확산은 자본에 의한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국가 내, 권역 내 축적된 갈등이 사회적 약자와 타자로 떠넘겨지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이슬람 테러는 중동의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과 서방 보수 세력의 득세로 이어졌는데, 그 외중에 빈곤과 폭력 그리고 테러는 국가나 체제의 주변부/하층부에게로 더 극심한 형태로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쟁 상황의 종식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전 지구적인 테러 위협의 확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결국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른다(김동춘, 『조롱과 테러, 파리의 두 야만』, 『한겨레』 2015.1.21; 박인규, 『주간프레시안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웃는 자는 따로 있다』, 『프레시안』 2015.1.24). 세계를 짓누르는 보수화 경향과는 결을 달리 하는 자리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반한 ‘로컬하고 리저널하며 트랜스내셔널한’ 정보의 흐름은 이주자들이 모국과의 연계를 좀더 강화하는 이른바 재에스닉화를 진행시키고 있기도 하다(伊藤守, 『정동의 힘』, 김미정 옮김,



세계화와 탈세계화, 탈국경의 일상화를 두고 억압과 저항, 가해와 피해, 긍정과 부정의 면모를 일방적으로 단정 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복합적 체제가 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글로벌 체제의 착취 메커니즘은 선명하고 뚜렷하지만, 착취구조는 복잡한 전략과 전문화된 혁신으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체제를 이루고 있다. 축출expulsion 개념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글로벌 위기의 근본적 동력과 그것이 형성한 약탈적 체제를 통찰한 도시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의 지적대로, “오늘날 부의 집중이 발생하는 곳”은 주권자와 소수의 권력자 혹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한데 결합된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 내부”다. 개별적이고 지엽적으로 가시화되는 약탈의 기저에 놓인 동력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효과를 간과하고는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되는 배제의 추세와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기는커녕 그 흐름을 포착하기도 어려운 것이다.<sup>12)</sup>

글로벌 차원의 국가 간 위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면 개별 국가 내에서의 위계 역시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 파산, 자살률, 빈민, 이민, 난민의 증가 추세는 재편된 자본 복합체가 만들어내는 위계의 하층에서 뚜렷하다. 빈곤국에서 좀더 극심한 체제의 변두리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세계화의 주도국 내에서도 사회적 배제와 퇴출이 심화되고 있다. 그 배제와 퇴출은 글로벌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들여다보지면 빈틈없이 체계적이고 잔혹하다. 그 외중에 국가 차원의 부의 축적과 개별 국민의 빈민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무한히 세분화되는 위계 구조 속에서 누구나 가해/피해의 존재가 되어 거대한 자본 복합체의 존

갈무리, 2015, 223-226쪽).

12) 사스키아 사센, 『축출 자본주의』, 박슬라 옮김, 글항아리, 2016, 16-102쪽.

속을 유예시키게 된다.

경제적 위축과 실업률의 증가, 중산층의 몰락과 가계의 주요 소득원인 남성 노동자의 가치 상실 즉 근대적 남성성의 상실과 재편이 여성혐오의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여파의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여성혐오는 한국사회 내의 지엽적이고 특수한 문제로 혹은 남성과 여성의 성차 대결이라는 탈역사적 문제로 환원되어버리기 쉽다.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복합작용의 결과이자 기저에 놓인 약탈적 자본 복합체의 결과임을 환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비정규직의 여성화도 맞물린 경향으로<sup>13)</sup>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의 이름”인 동시에 “사회구조적으로 배제된 약자의 이름”<sup>14)</sup>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3. 비가시화 혹은 분할통치: 내화하는 국경, 분할되는 인종

탈국경의 일상화라는 명명이 환기하듯, 민족국가의 외연은 뚜렷하지 않으며 탈국경의 경계는 견고하지 않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운데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지역에도 외국인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 단위의 참사에서 피해자 가운데 포함된 이방인이 관심 대상이 된 경우는 드물다. 외

13) 1997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한국사회의 노동 유연화-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유연화가 급속도로 강화되었고, 노동시장에서 특수용어인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확대되었다.

14) 김신현경은 영화 <부산행>(2016)에서 가장 먼저 좀비가 되는 그 ‘여성(여승무원)’이 “생물학적 차이의 이름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배제된 약자의 이름”임을 강조했다. 『KTX 여승무원이 최초의 좀비들 중 하나인 이유』, 『Littor』 2016년 10/11월호, 30쪽.

국민이 타국민 혹은 외국인(외국 국적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자 가운데 포함된 외국인을 외국인으로만 지칭해버리는 일은 온당하지 않다. 들여다보자면 그들을 타국민 혹은 타국적인으로 단정지어 말하기도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자에는 결혼이주로 일본에 온 필리핀 여성과 농어촌 노동연수로 온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sup>15)</sup>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져 구조된 5살배기 아이는 베트남 이주여성인 어머니를 포함한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다. 피해자 5인에 포함된 러시아인 학생의 아버지는 한국인이었고, 중국인 2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이었다.<sup>16)</sup>

탈국경의 일상화는 국경의 무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경은 경계 내부의 위계로 내화되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젠더적, 계급적, 인종적 차원의 복합적 위계구조로 중층화되는 추세다. 국경은 비가시화되면서 내적으로 차별화/위계화되고 있는 것이다. 탈국경의 일상화와 함께 뚜렷한 흐름을 이루는 이주의 여성화는 이 내적인 차별화와 위계화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다. 따지자면 이주하는 여성 다수가 아시아 여성이기도 한데,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여성들이 이주하게 된 것은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포함한 감정노동 영역이 급격하게 상품화된 추세와 맞닿아 있다.<sup>17)</sup> 국경을 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진 현상을 의미하는 이주의 여성화는 동시에 이주 여성이 주로

15) 한홍구·서경식·다카하시 테쓰야, 『후쿠시마 이후의 삶』, 이령경 책임 번역, 반비, 2013, 34쪽.

16) 『외국인 희생자 시신 수습』, 『경인일보』 2014.4.21; 허재현, 『베트남인 '세월호유가족' 판반짜이는 말한다』, 『한겨레』, 2014.12.27.

17) 김현미,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이동하는 여성들』, 『여성과평화』 5, 2010, 122쪽.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을 떠맡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이주노동의 가정주부화이기도 하다. 종종 망각되지만, 여성이 떠맡는 이 노동은 산업경제에 기여하는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이 창출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이 보이지 않는 노동이야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만연해 있으면서도 가장 문제시되지 않는 억압적 차별의 중심”<sup>18)</sup>을 이룬다. 가사/돌봄노동의 외주화이기도 하다는 점에서,<sup>19)</sup> 이주의 여성화, 이주의 가정주부화는 이주가 단지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니라, 국가적, 계급적, 젠더적, 인종적 위계를 고스란히 경험하는 일이자, 이주를 통해 국가-계급-젠더-인종 위계구조가 재편되고 강화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식당의 홀서빙을 담당하거나 주방에서 일하는 여성, 중산층 가정에서 가사나 육아 혹은 간병을 담당하는 여성 가운데 여성 이주노동자를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주자들은 예상보다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사실상 비가시적 존재다. 차별적 동

18) 이반 일리치, 『그림자 노동』, 노승영 옮김, 사월의책, 2015, 178쪽.

19)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젊은 남성들이 한국의 사회문제를 토론하는 텔레비전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출연자인 외국인들이 몸값 높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한국사회의 개방성에 긍정하게도 된다. 하지만 ‘다문화’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이방인들에 대해 한국사회는 여전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다. 이 개방적이면서 폐쇄적인 양가적 태도, “동경과 혐오의 이중주”(손희정, 『우리 시대의 이방인 재현과 자유주의적 호모내셔널리티』, 『문화과학』 81, 2015, 376쪽)는 사회적 타자에 대한 분할통치에서 활용되는 일반적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주노동자, 탈북자, 결혼이주여성이 국경을 넘는 존재들로 특화되어 다루어지며, 피해자, 희생자, 돌봄의 대상으로 타자화되고 있지만, 국경에 대한 상상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면화되는 것은 노동의 외주화, 가사/돌봄노동의 외주화와 함께 폭력의 외주화 경향이기도 한다. 가장 잔혹한 폭력이나 살상용 인간 병기는 북한, 중국, 동아시아라는 인종적 상상력과 결합하여 한국사회의 불안과 공포의 요인으로 호명되며, 다문화와 이방인이라는 말은 아시아 출신의 이주자에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형편이다.

화의 대상인 이주여성은 착하고 약하고 가엾은 존재로, 그리하여 대개 희미한 존재로 그려진다. 당연하지만 동화되지 않는 존재는 위험요소로 치부되며 끝내 공동체에서 축출된다.<sup>20)</sup> 비가시적 존재에 대한 분할통치는 여전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들의 삶이 온전한 가치와 위상을 획득하지는 못한다. 그들이 국경을 넘어 목숨을 건 도약을 시도한다 해도, 그녀들이 감당해야 할 비극은 비가시적 존재인 채로 이방인 일반의 것으로만 다루어질 뿐이다.<sup>21)</sup> 보이지 않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녀들은 역설적으로 언제까지나 이방인으로만 남겨진다. 이주여성이 분할통치를 통해서도 개별적 존재로 포착되지 않는 이러한 사정은, 오염된 학술용어임에도 디아스포라를 폐기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준다. 디아스포라는 이주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면서도, 이방인이나 이주민이라는 말에 담긴 자발성의 의미를 상대화하면서 사회적 타자에 대한 함의를 놓치지 않으려는 명명법이자, 국경을 넘는 존재들이 국가 간 위계에 의해 선규정된다는 사실을 포착하게 하는 유용한 명명법이다. 이런 점에서 국경을 넘는 존재들은 국가와 계급, 인종과 젠더의 위계가 결합된 에스니시티의 관점을 피할 수 없다. 같은 언어를 쓴다 해도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그녀들은, “자신이 발음하는 게” “단순히 타지 사람이 쓰는 ‘노동자의 언어’일 뿐”임을 깨우쳐야 하며, “소리와 억양이 환기시키는, 어떤 냄새에 대해서도, 죽어도 완벽해질 수 없는 딴 나라말의

20) 서성란의 소설 『쓰영』(산지니, 2016)에서 10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자인 우엔 티 쓰영은 결국 방화범으로 몰려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21) 부모의 죽음에도 한국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의 처지를 짚은 전성태의 『배웅』이 보여주듯, 식당의 홀서빙이나 주방일을 오랫동안 함께 했다고 해도 한국 사람인 식당 주인이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다. 『배웅』에서 미숙은 부러 무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주방을 맡았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 종업원 쏘야가 우즈베크 사람인지 카자흐 사람인지도 혼동한다. 전성태, 『배웅』, 『두 번의 자화상』, 창비, 2015, 45쪽.

질감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알게 된다.<sup>22)</sup> “한국음식을 능숙하게 요리한다고 해도” “수십 년을 눌러 살아도” “설령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녀들은 언제나 “외국인일 뿐”이다. “그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아이를 낳더라도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sup>23)</sup>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타자로 구성된 김려령의 『완득이』<sup>24)</sup> 속 공동체에서 15년 만에 나타난 완득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점 자체는 특별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sup>25)</sup> 엄마의 등장이 불러온 충격이

22) 김애란,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 『비행운』, 문학과지성사, 2012, 137쪽.

23) 서성란, 『쓰엉』, 산지니, 2016, 18쪽.

24) 2007년 제1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인 김려령의 『완득이』는 청소년소설 영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흥미로운 소설이자 이후 영화로도 만들어져 폭넓은 인기를 누린 문화 콘텐츠이다.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불우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사회적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쾌하게 풀어간 소설인 『완득이』는 완득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울분과 불만을 싸움이나 스포츠로 승화하면서 사회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5) 흥미롭게도 소설은 그녀가 사기결혼을 한 사정, 결국 완득이를 떠나게 된 사연을 완득이 담임과 완득이 아버지의 입을 통해 소개한다. 그들이 ‘대신 말해준’ 사연에 의하면 완득이 어머니의 15년은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의 전형적 삶이라 해도 좋다. “똥주는 성남 어느 식당에 내 어머니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 같은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린 나이에 남편 얼굴도 안 보고 먼 나라까지 시집왔는데, 남편이 장애인이거나 곧 죽을 것 같은 환자인 경우도 있다고. 말만 부인이지 오지 마을이나 농촌, 섬 같은 곳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경우도 있단다. 그러다 보니 아이 하나 낳고 자신에게 관심이 좀 소원해졌을 때 가슴 아픈 탈출을 하기도 한다고.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도망간 것이겠지만 부인 입장에서는 국제 사기결혼이라나./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넘쳐난 나라에서, 꼴 같지 않게 제3세계니 뭐니 해가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아낌없이 무시해주는 나라에서, 어머니가 무척 힘들었을 거라고. 그럼 그 조건에 +1 해서, 어머니 없이 사는 나는 뭐가. 똥주가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아버지는 장애를 숨기지 않고 서류에 썼는데, 가운데에서 브로커가 그 부분을 싹 지우고 결혼을 진행시켰단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신부로 맞기 위해 사기를 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려령, 『완득이』, 창비, 2008, 46-47쪽.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완득이에게 낯설기만 한 존재였던 그녀는 ‘그분’에서 점차 ‘어머니’가 되어가지만, 고향을 떠나 한국에 와서 15년을 지냈다는 완득이 엄마는 한국 국적의 소유자임에도 여전히 이방인이다.<sup>26)</sup> 아들에게도 존댓말로 일관하는 그녀는 “가난한 나라 사람이, 잘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면서 아버지 나라가 그분 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산다는 이유로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한국인으로 귀화했는데도 다른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는”(김려령, 149쪽)다. 주목할 점은 어떻게 해도 해소되지 않을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의 비가시성이 완득이의 ‘어머니’가 되는 자리에서나 간신히 완화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으로, “은근히 성질도 있는”(231쪽) 그녀가 소설에서 드러낸 감정이 “미안해요./ 잊고 살지 않았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80쪽)라는 내용의 편지에 담긴, 자식을 두고 떠난 어머니의 죄의식과 다시 찾은 가

26) 이방인에 대한 작가의 관점은 비교적 균형감을 유지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한, 나쁜-한국인-자본가와 착한-외국인-노동자 구도에만 갇혀 있지 않으며 출신 성분과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삶을 사는 완득이 담임에 대해서도 마냥 선하고 윤리적인 존재로 다루고 있지도 않다. 청소년을 독자로 삼는 소설임을 환기하자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작가의 인식은 신뢰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소설적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이 소설이 완득이 엄마의 15년 삶 아니 그 이전의 삶에 무심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완득이』에서 그녀의 가족은 한국에만 존재한다. 새삼 환기할 필요도 없이, 가족은 애초에 재산 있는 계급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르주아적 함의를 갖는 개념이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 자리에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규율해온 불평등한 권력분배의 제도화 면모를 확인하게 된다. 위계구도의 상층에 놓인 남성을 중심으로 하위의 가족들이 파괴되거나 재편될 수 있음을 은폐된 진실로서 감지하게 된다(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김민철 옮김, 갈무리, 2011, 158쪽; 실비아 페데리치, 『혁명의 영점』, 황성원 옮김, 갈무리, 2013, 69쪽;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203-234쪽).

족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게 읽힌다.

보이지 않는 노동을 떠맡으면서 이주여성은 사회 내부로 안착한다 아니면 비가시화된다. 한국의 경우, 결혼을 위한 이주만이 합법인 법적 조건 자체가 그녀들의 존재/흔적을 지우는 조건이자 동력이 된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공모적 작동관계를 환기하자면, 여성이 가정주부화될수록 그녀들의 노동은 무급노동 즉 국가 단위의 생산력으로 회수되지 않는 공짜의 것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sup>27)</sup> 이주여성은 대개 국경을 넘으면서 가정주부 역할을 할당받는다. 가정주부가 되거나 가정주부의 노동을 떠맡게 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결혼이주여성은 아내이거나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불법적'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sup>28)</sup> 지엽적으로 보이는 이주여성의 가정주부화가 (여성혐오로 구현된)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와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여성을 집안에 가두는 '여성에 대한 인클로저'<sup>29)</sup>의 사회적 여파가 이주여성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 4. 젠더-계급-인종의 복합적 위계구조와 순도의 계열화

다문화와 탈국경 서사에 대한 관심이 200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되었지만, 따지자면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자는 계급적으로 인종적으로 특화된 대상으로 즉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포착되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찰자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대상화된' 존재로서 다루어졌

27)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김민철 옮김, 갈무리, 2011, 120-121쪽;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97-112쪽.

28) 소라미,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이주여성』, 이주여성인권포럼,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오월의봄, 2013, 258쪽.

29) 이반 일리치, 『그림자 노동』, 노승영 옮김, 사월의책, 2015, 189쪽.



다.<sup>30)</sup> 이런 면에서 보자면 중국 길림성 출신 작가 금희의 소설은 그녀들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라는 특화된 시각을 벗어나 욕망의 존재로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금희의 소설 「옥화」나 「노마드」에는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중국 도시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끊임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나며 국경을 넘나드는 이들이 넘쳐난다. 금희환향을 꿈꾸며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고자 했으나 결국 넘을 수 없는 문화의 차이나 흔들리는 정체성으로 끼인 존재임을 확인해야 하며<sup>31)</sup>, 그렇게 그들은

30)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 38-2, 2004; 오윤희, 「디아스포라의 플랫폼」, 『시학과언어학』 17, 2009; 장미영, 「제의적 정체성과 디아스포라 문화」, 『한국언어문학』 68, 2009; 허병식, 「200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와 정체성 정치 비판」, 『다문화와평화』 6-1, 2012; 이미림,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우리문학연구』 35, 2012; 연남경,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접경지대와 구성되는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2, 2013; 김지혜,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이주적 환대와 교육의 문제」, 『문학교육학』 44, 2014; 김민정, 「전성태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과 타자 인식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51, 2015. 대중매체에 의한 이주여성의 재현에 대해서는 이현주, 「한국 텔레비전의 결혼이주여성 재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권금상,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주여성’ 재현의 사회적 의미」, 『다문화사회연구』 6-2, 2013.

31) 소설의 중심인물 박철의 경우가 그러하다. 중국을 떠난 지 4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떠오른 상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일에 대한 입장 차이 외에 박철이가 난감했던 것은 단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나라 사람들한테 무의식간에 걸었던 근거 없는 높은 기대였다. 다만 다른 점은 영어가 많이 섞인 교양있는 말투나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교통질서, 위생습관, 음식솜씨 등등 대체로 그런 자잘한 것들뿐이라고 어리석게 단정한 박철이는 마침내 그런 자잘한 것들이 모여 기어코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했다. (...) 한국 사람들이 말하던 ‘중국’ 조선족이라는 이름을 박철이 자신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이왕에 ‘중국산’이라면, 다만 4년이란 시간 동안 한국물로 코팅되었을 뿐인 ‘중국산’이라면, 정말 ‘중국산’답게 중국 브랜드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박철이는 원천을 찾아, 꿈을 찾아 떠났던 원위치를 다시 돌아오기를 마침내 결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가 그리던 고향은 더 이상 없다. 1970년대 농촌이 그러했듯, 마을은

정주 없는 노마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sup>32)</sup> 중국 사람과 조선족,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이 공존하는 장춘을 배경으로 이주의 일상화와 유동적 삶의 면모를 포착하는 『노마드』에서 작가는, 형편이 어렵고 내세를 만한 조건이 변변치 않은 중국 조선족 남성이 조선 여자와 살게 되는 상황을, 중국 조선족 여성이, 형편이 그리 풍족하지 않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상황과 겹쳐두고 그 중첩적 의미를 다룬다. 소설은 경제적 격차가 있는 국가(종족) 사이의 결혼을 통해 문화적 차이가 불러오는 갈등의 이면을 짚는다.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격차에 입각한 국제결혼을 두고 그러한 결혼에서 ‘가난한 나라 출신’이자 ‘돈을 주고 사온 신부’라는 인식이 불러오는 권력의 위계가 상존하는 사정을,<sup>33)</sup>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제적 격차가 부부관계를 준-계급관계로 변모시키는 사정을 포착한다.<sup>34)</sup>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선 여자, 호영이의 색시뿐만 아니라 박철이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이미 동네에 있었던 여러명의 조선 여자들이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아무개 색시는 시내 음식점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아무개 색시는 방앗간집 돈을 몇 천원 꾸더니, 또 아무개네는 세돌배기 어린 아기를 재워놓고 떠난 것이…… 거푸 5년을 버틴 여자들이 없다고 했다. 이제는 더 가난한 동네 한족 여자들을 데려오는 편을 훨씬 낫게 여긴다고 했다.<sup>35)</sup>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서 결혼을 결정한 누나처럼 그들의 결합에도

---

근대화되어 마을의 옛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금희, 『노마드』,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206-207쪽.

32)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국경을 넘는 모든 이들이 아니라 여성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탈향과 귀향을 반복하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대개 떠난 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채 끝나지 않는 이주의 삶을 살게 된다.

33) 황정미,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성별 위계와 문화적 편견』, 김영옥 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76쪽.

34) 김현미, 『사랑의 이주?: 국제결혼 베트남 여성의 결혼 이주 과정』, 김영옥 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34쪽.

35) 금희, 『노마드』,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220쪽.

각자의 필요라는 이유가 먼저였을 것이었다. 호영이는 아마 ‘아내’보다는 우선 ‘여자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여자는 ‘남편’보다는 우선 ‘살 곳’이 필요했을 것이다. 호영이가 ‘여자를 ‘아내’로 대우해주기도 전에 그 여자는 ‘살 곳’이 다른 데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전망 없는 ‘살 곳’이 평생을 같이해야 하는 ‘남편’이 될까 봐 두려웠을 것이다.<sup>36)</sup>

『노마드』에서 작가는 끊임없이 이주를 거듭해야 하는 이들을 통해 “북한 사람은 중국을, 중국 사람은 한국을, 한국 사람은 미국을 동경하듯”(260쪽) 모두가 같은 욕망에 떠밀리고 있음을 본다. 이전의 모든 것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모두를 이주와 정주 사이에서 떠돌게 하는 근대화에 대한 아쉬움을 품으면서도 작가는 삶의 진전에 대한 낙관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가가 들여다본 실상이 작가의 요청처럼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국 국적 조선족인 박철이 한국에서 노가다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여성들인 불법체류 중국 국적 조선족과 북한 이탈 여성을 두고 떠밀리는 삶을 사는 존재로서의 공감을 떠올리는 것은 사회적 타자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상상이자 타자’들 사이의 관계를 간과한 안이한 이해법이다. 박철과 그 여성들 사이에서 싹튼 애정과 연민과 욕망은 젠더와 계급이 결합된 인종의 위계구조를 반복하며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조선족 여성과 애정을 나누는 조선족 남성은 한국사회 적용에 가장 힘겨워하는 북한 이탈 여성의 신산한 삶을 연민하지만, 조선족 여성의 입장에서 북한 이탈 여성은 마침내 ‘한국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이탈 남성이나 조선족 남성보다는 “오리지널 한국남자”(241쪽)와의 결혼을 꿈꿀 가능성이 높은 존재로 상상된다. 각자의 관계를 둘러싼 이러한 오해 혹은 상상은 어디에서 연원한 것인가. 그것은 누구의 인식인가.

36) 금희, 『노마드』,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222쪽.

‘오리지널 한국인’이라는 기준에 따라 젠더와 계급과 지역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즉 혈통의 순도 차이로 정교해지는 위계 구조는 이렇듯 서로를 배제하고 거부하며 오해하거나 혹은 혐오하게 만든다. 그들이 서로 적대하게 되는 과정은 『옥화』에서 온정의 일방적 수혜자의 표상을 벗어나는 탈북 여성에 대한 당혹감을 통해 좀더 세밀하게 다루어진다. 혈혈단신으로 목숨만 간신히 보존한 채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온 여성들은 그녀들보다는 좀 처지가 낫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상상되는가. 그들은 서로에게로 닿을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탈북 여성과의 관계에서 흥을 연원을 알 수 없는 연민과 죄의식 그리고 불쾌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 국적 조선족인 흥이 겪는 두 명의 불법체류 탈북자는 흥과 흥이 속한 공동체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아니 선의를 갈취하려드는 후안무치의 존재들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이나 정직한 양심 따위마저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73쪽)으로 각인된다. 불법체류 탈북자는 그곳에서 부정적 에스니시티를 환기한다. 교회 기도모임에서 만난 불법체류 탈북 여성은 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흥 자신과는 달리 그리 미안해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 무례한 태도로 일관한다. 변변치 못한 조건으로 여태 결혼을 못한 흥의 남동생을 위해 어머니가 은밀히 데려온 조선여성 옥화는 온가족이 성심껏 아껴주었고 동생과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기를 바랐으나 오천원의 차용증과 함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라진다.

때로 교회에서 만난 여자의 입으로, 때로 동생의 여자였던 옥화의 입으로 - “사람들은 여기서 일도 하고 맘에 맞는 사람 만나 살라디만, 긴테 기실 여기서는 하고 싶은 거 아무거이두 못해요. 거기 가르는 합법적으

루 뭐이나 할 수 있대니, 가야디요.”(83쪽) -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짓누르듯 강화하는 “자기편이 아닌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불안함”(82쪽)이 그들을 정주하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가늠해보지만, 사실 흥에 의해 추정된 원인들에 우리가 충분히 동의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이 놓여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sup>37)</sup>

이주여성의 재현이 아니라 이주를 강제하는 자본과 국가의 논리, 그 노골적인 공모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서사화될 수 있는가. 과연 서사화는 가능한가. 피할 수 없는 표상 폭력이 끝내 그녀의 정체를 알 수 없게

37) 오히려 『옥화』는 흥과 그녀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으며, 그것이 좀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의 것이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녀들은 흥이 만들어낸 표상의 범주를 넘는다. 온정과 연민의 대상이라는 타자 표상을 찢고 나와 그녀들은 스스로의 논리에 따라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음을 역설한다(백지연,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금희, 『세상에 없는 나의 집』 해설, 창비, 2015, 275쪽). 제3세계문학 연구자 오카 마리의 지적대로, “타자와 만나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그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망각 상태마저 망각하고 있는 타자의 시선 속에서 나의 몸짓은 언제나 나의 의도를 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야기”(岡眞理,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이재봉·佐伯勝弘 옮김, 현암사, 2016, 268쪽)한다. 각도를 달리해서 자신의 시야로 포착할 수 없는 타자의 형상, 무언지 알 수 없으며 이해되지도 않는 면모들과의 대면에서 돌연 관용이라는 이름의 통치술은 그 허위의식을 누설하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흥의 당혹스러움과 길게 이어지는 불쾌감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허위의식과 대면하게 된다. 우리에게 통칭 타자이지만, 그 타자들 사이에 무수한 차이의 위계가 놓여 있으며, 이미 우리 안에도 남성과 여성의 위계가 넘을 수 없는 간극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금희의 소설 『노마드』나 『옥화』는 ‘타자’ 혹은 그 내부의 차이를 세심하게 짚으면서 우리의 예상과 다른 ‘타자’ 혹은 ‘이주여성’의 목소리를 가청 영역으로 이끌어내고 있으며 그 목소리에 다가가고자 길을 내고 있음에 분명하다. 금희의 소설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그녀들의 목소리가 있으며, 그녀들의 말이 종결되지 않는 문장들, 그 말줄임표 속에 담겨 있다는 소중한 진실을 전한다. 그럼에도 소설을 통해 그들이 왜 국경을 넘었는가에 대해 우리가 그리 많은 것을 알게 되지는 않는다. 좀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전히 그녀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그녀들이 누구인가는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그 공백은 어떻게 가시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가능한가.

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녀들을 떠돌게 하는 힘이 그녀들 사이의 위계구조 안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기해두려 하는 것이다. 금희의 소설은 여성의 이주가 그들의 자발적 욕망에 의한 것이자 가족들을 위한 선택임을 말해준다. 금희의 소설이 짙어낸 이주여성을 둘러싼 새로운 면모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주의 강제력은 소설 내부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녀들을 끝없는 이주의 삶으로 밀어넣는 힘은 자발적 욕망으로 구현된 자본 자체다.

한국 남자와 중국 여성, 조선족, 필리핀이나 일본 여성,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정책의 일환이자 결혼 중개업을 둘러싼 거대한 이윤사업이기도 하다.<sup>38)</sup> 경제논리가 깊게 침윤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된 이 국제결혼이 특정 계급의 남성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행되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sup>39)</sup> 무엇이 인종과 젠더와 계급이 결합된 다양한 출신의 사람을 ‘오리지널 한국 남자’라는 기준 즉 혈통의 순

38) 이것이 비단 한국에만 해당하는 일도 아니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여성과의 결혼 시장이 번성했던 1970~80년대 독일의 사정에 대해서는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300-301쪽 참조. 따라서 이 사업에서 국제결혼의 성사여부는 여성 쪽의 욕망과는 무관하다. 그녀들은 선택되는 상품으로 존재할 뿐이다. “젊여사의 합숙소는 호치민 시내의 수십 개가 넘는 크고 작은 합숙소 중 한 곳이었다. 중매쟁이 아줌마 손에 이끌려 합숙소로 온 처녀들은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떠날 수 없었다. 처녀들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그녀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미래의 남편이 될 한국남자가 지불해야 했다. 쓰영은 합숙소 고참 때 언니에게 공동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배웠다. 낯선 출신 때 언니는 틈만 나면 일층 응접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았고 혼잣말처럼 한국어를 중얼거렸지만 여섯 달이 넘도록 한국 남자에게 선택되지 못했다. 때 언니는 합숙소에 있는 전자레인지와 세탁기 사용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었고 호치민 시내에 있는 야시장으로 쓰영을 데리고 갔다.”(서성란, 『쓰영』, 산지니, 2016, 145쪽)

39) 김현미, 『‘사랑’의 이주?: 국제결혼 베트남 여성의 결혼 이주 과정』, 김영옥 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14-17쪽.

도를 기준으로 줄 세우게 되었는데. 분명한 것은 순도에 따라 줄 세워진 그녀'들' 사이의 차별적 위계를 간과하고는, 하위의 존재에 대한 부정(/배제, 무시, 모욕, 혐오) 속에서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복합적 위계구조의 폭압성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 5. 자매애의 불가능성, 내적 격차의 모성 불합술

여성 내부의 위계는 어떻게 파헤쳐지며 또 어떻게 통합되는가. 한국 사회에서 학력이나 능력이 없는 여성이 어떻게 생계를 꾸릴 수 있는가에 대해 특별한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 사회의 최하층에 놓인 존재인 박카스 할머니의 일상을 담은 영화 <죽여주는 여자>(2016)에서 그녀의 삶은 사회적 약자들과 공존한다. 영화가 갖는 사회적 메시지의 의미를 인정한 채로 짚어보자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화의 여운은 박카스 할머니의 이른바 '선행'이 불러오는 불편함에서 온다. 노인들을 '죽여주고' 필리핀 코피노 아이를 '지켜주는' 그녀의 행위는 그녀의 것이라기보다 성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그녀의 내면에 성스러운 모성이 내장되어 있음을 포착하려는 감독의 판타지적 시선이 만들어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왜 남성 노인들은 스스로의 존엄을 여성의 손과 몸과 마음을 빌려 지켜야만 했는가, 자신의 일상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왜 그녀는 성병 치료를 받기 위해 들른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필리핀 코피노 아이를 구해야 했는가. 삼팔선 따라지로 양공주로 몸을 팔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녀는 혼혈아를 낳아 입양을 보내야 했던 아픈 과거를 자신의 치부로, 죄의식으로 간직해야 했는가. 사회적 타자들에 대한 온정적 시

선이 따뜻하게 배어 있는 이 영화가 그들의 삶에 대한 잔잔한 구현만으로도 사회적 환기력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이 영화가 사회적 타자'들' 사이의 위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나아가 그들 사이에 놓인 슬픔과 고통이 모성의 이름으로 봉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새기고 있는 점은 불편한 뒷맛을 남긴다.

부러 비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타자들 내부의 차이, 타자들 내부의 공유지점과 그럼에도 공유불능의 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화 <미씽>(2016)<sup>40)</sup>이 파헤친 여성과 이주여성의 관계에는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의미가 담겨 있다. 김연/한매, 그녀는 누구인가. 한국말이 그리 유창하지 못한 한매는 영화에서 긴 통곡과 울부짖음, 일그러진 표정으로만 말하는 존재로 그려진다.<sup>41)</sup> 매매춘 업소 동료에 의해 '착한

40) 표층 서사로 보면, 영화 <미씽>은 조선족 보모가 돌보던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유괴사건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이혼 후 싱글맘으로 사는 아이의 엄마는 되새기듯 묻는다. 아이를 데리고 보모는 어디로 간 것일까. 하지만 아이의 남편/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양육권을 두고 소송 중인 싱글맘이 보모와 짜고 아이를 빼돌린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따지자면 영화의 부제인 '사라진 여자'가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듯, 영화 <미씽>은 사라진 아이가 아니라 '사라진 여자'를 추적하는 이야기다. 급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보모가 사라진 상황에 맞닥뜨린 싱글맘 이지선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공권력을 뒤로 하고 스스로 보모 한매의 뒤를 쫓게 된다. 이후 밝혀지는 사연은 처참할 정도로 비극적이다. 결혼이주 여성인 김연은 폭력적인 가부장 가정에 갇혀 아들을 낳을 것을 강요당한다. 대를 이을 아들을 필요로 하는 가부장 가족에게서 돈에 팔려온 씨받이에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그녀가 아이를 낳았으나, 그 아이가 선천성 질환에 시달리면서 사정은 더 안좋아진다. 아이는 다시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이의 치료를 위한 그녀의 노력을 이용해 돈과 성을 악랄하게 갈취한다. 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장기를 팔았으나 결국 아이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각서로 아이와 함께 병원에서 내쫓기며, 결국 아이는 죽고 만다.

41) 병원비를 정산하지 못해 병원 침대에서 쫓겨나 쓰레기 치워지듯 아이와 짐들이 복도에 부러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남편이 아이의 치료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죽은 아이 재인을 김치냉장고에 넣어두고 지선의 아이 다온을 안고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우리는 알지



사람으로 규정되지만, 국제결혼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주여성인 그녀는 영화에서 모성적 존재로서만 다루어진다. 한때가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도중 어두운 길 위에서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 오열하는 장면은 긴 여운을 남기는데, 그녀의 통곡소리는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어두운 방안에 누워 선잠을 자던 지선의 컷과 겹쳐진다. 영화에서 지선은 점차 한때의 고통에 찬 삶을 알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결국 한때의 고통에 가닿게 된다.

이제 그녀들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렇게 지선과 한때는 여성(/엄마)으로서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해도 좋은가. 영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현실논리에서 보자면 그럴 수 없기도 하다. 1960년대 중반 이후로 국제적 노동분업과 하청체계를 통해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된 이후로, 한국사회는 공적/사적 영역에 성별분할 인식을 결합해 여성노동을 전반적으로 하향가치화 해왔으며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내부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sup>42)</sup> 여성이 어찌다가 ‘잊혀지고, 무시되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며, 여성노동이 무화되고 저평가되는 것도 다른 보편적 이론이나 정책이 ‘아직’ 수용하지 못한 ‘특수한’ 사정 때문이 아니다.<sup>43)</sup>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임금노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계급-인종-지역) 여성의 무급노동을 착취해야 한다. 이주여성의 노동이 무급의 형태로 희미해지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떠맡는 존재가 되어야만, 그녀는 자신의 노동을 인정받게 된다. 냉장고 안에 죽은 자신의 아이를 넣어두고, 돌보아야 할 아이를 안아야 하는 한때의 처지야말로, 재생산노동의 시장화가

못한다.

42) 김현미·손승영, 「성별화된 시공간적 노동 개념과 한국 여성노동의 ‘유연화’」, 『한국여성학』 19-2, 2003, 74-82쪽.

43)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63쪽.

만들어낸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의 비극적 장면이 아닐 수 없다.<sup>44)</sup>

〈미씽〉의 울부짖는 두 여자는 아이를 잃은 엄마들이다. 그 이전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이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사랑의 단단함과는 무관하게, 아이는 엄마의 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빼앗기기 않기 위해 한 여자는 아이 얼굴을 보지 못한 날들이 이어져야 할 만큼 일을 해야 한다. 한 여자는 아픈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장기와 섹스, 말 그대로 육체를 파는 일을 해야 한다. 그나마도 한 여자의 엄마로서의 삶은 다른 여자(이주여성이자 하층여성)의 돌봄노동을 착취하고 삶 전부를 갈취하고서야 간신히 유지될 수 있다. 두 여자는 같은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두 여자의 고통은 결코 같지 않다. 이 영화는 두 여자 사이에 놓인 고통의 국가적-계급적-인종적 격차를 포착하면서 조선족 보모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사건이라는 표층의 서사와는 다른 환기력을 갖게 된다. 아이를 전해 주고 바다로 몸을 던진 한때를 구하기 위해 지선이 바다로 뛰어들이지만, 한때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바다 깊숙이 침잠한다. 영화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결혼이주여성의 열망이 국가적-계급적-인종적 위계의 상층부에 놓인 ‘엄마-아이’에 대한 복수의 형식으로, 범죄의 양태로서나 표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시에 그 복수와 범죄가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는 결코 완수/실행될 수 없으며, 그나마도 자기파괴의 형태로나 종결될 수 있음을 포착한다. 영화는 그녀들이 동량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그리 손쉽게 자매애로 연대할 수 없는 사정, 여성혐오와 결합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 (노동) 현실을 환기한다.

〈미씽〉이 여성혐오와 가사노동/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혜가 농후한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적 사태를 여성을 중심으로 풀어내려 한 시도는

44) 실비아 페데리치, 『혁명의 영점』, 황성원 옮김, 갈무리, 2013, 188-193쪽.

유의미하다. 그럼에도 <미씽>에서 여성은 모성적 존재로서 제한되고 모성의 신성성은 전면적으로 질문되지 않는다. 왜 그녀들은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도 아이에 대한 사랑을 한 치도 의심하지 않는가. 그녀들은 왜 엄마로서만 존재해야 하는가. 그것도 다른 엄마의 삶을 착취하면서나 가능한 삶을 말이다. 왜 그녀들의 존재이유는 엄마가 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이런 제한적 인식은 그녀들 자신보다는 시대현실적 제약의 결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때의 모성이란 국가와 인종, 계급과 젠더의 위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지는 여성 내의 새로운 불평등을 은폐하는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에 대해 묻지 않고, 우리가 사라지는 여성들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 6. 결론을 대신하여: 포스트 민주화 시대로의 이행을 위하여

광장 민주주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다. 하지만 이후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한국사회의 여러 시도들이 시도로서 가치를 갖는 동시에 무시와 모욕, 혐오가 들끓는 한국사회의 일면은 그 시도에 상응하는 실효를 거두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개인의 해방을 이끌었으며, 타자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러나 곧 경제적 함의만 남긴 채 정치성을 상실한다.<sup>45)</sup> 타자와 경계에 대한 사유의 발견이 무엇

45) 손희정은 혐오가 시대적 집합감정이 된 사정의 한 원인을 87년 체제와 그 실패에서 찾는다. 87년 체제의 실패라기보다 제도적 민주화가 획득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좀더 엄밀하게 묻는 것이라고 해야 할 터,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이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로의 진입으로 명명되는 97년 체제로의 이행을 내적으로 요청하고 있었

을 의미하는가를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IMF 금융위기는 그러한 시도의 가능성을 냉각시켰다. 한국사회에는 꽤 약화되었다고 여겨졌던 권위주의적 경향이 복권되었고 나쁜 의미의 다원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는<sup>46)</sup> 반동적 상황을 사회적 난제로서 맞이해야 했다.<sup>47)</sup>

상황의 복잡성은 강화되는 중이다. ‘권리 없는 자들’과 ‘몫 없는 자들’에 대한 확정이 쉽지 않으며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입신출세 담론의 사회적 실현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으나, 그것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노력론으로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sup>48)</sup> 여기에 덧붙여 한국사회의 오래된 사회감정인 평등주의 열망은 다원주의적 정체성이 가시화되는 장을 열어주는 긍정적 힘으로 작동했으나 결과적으로 다양한 정체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정에서 실효성 있는 힘으로 작동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회균등에서 분배균등의 지점으로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그러한 변화를 막는 반동적 힘으로 작동했다. 조희연을 빌려 말하자면, 87년 체

---

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점검은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손희정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의 개인화가 불러온 정치적, 경제적 공백의 (부정적) 효과이다. 손희정, 『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32, 2015, 14-24쪽.

46) 민주화의 역설과 나쁜 다원주의의 효과에 대해서는 소영현, 『데모스를 구하라-민주화의 역설과 한국소설의 종말론적 상상력 재고』, 『하위의 시간』, 문학동네, 2016 참조.

47) 이러한 곤경은 87년 체제가 갖는 성격 즉 “87년 6월 항쟁에서 87년 헌법이 구성되어 대통령 선거를 향해 가기까지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회세력 간의 타협과 조정 그리고 그때 형성된 제도적 매트릭스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긴 교착, 나쁜 균형의 상태로 우리 사회를 몰아넣”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87/97 체제 논쟁 자체는 이 글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김종엽 편, 『87년체제론』, 창비, 2009, 40쪽.

48) 물론 입신출세주의와 노력론에 대한 냉소와 풍자가 ‘헬조선’론으로 ‘노오력’론으로 ‘금수저/흙수저’론으로 노골화되었으나 한국사회에서 그 담론의 영향력 자체가 힘을 잃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시대적 과제로 부여했던 민주(주의) 개혁이 새로운 가능성과 제약 하에서 전면화되지 못하고 97년 체제의 제약 하에서 전환을 맞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포스트 민주화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지향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민주화 이후, 즉 포스트 민주화 시대로의 이행을 위한 진통을 겪으면서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sup>49)</sup>

탈국경의 일상화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역류 현상을 추동하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다. 탈국경의 일상화와 이주의 여성화 경향은 지금 이곳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주체와 대상을 둘러싼 좀더 근본적 질문을 촉구한다. 혐오 특히 여성혐오는 금희의 소설이나 영화 <미씽>을 통해 살펴 보았듯, 국가적, 인종적, 계급적, 젠더적 차이가 복합적 영향관계 속에서 구축하는 위계구조와 그것에 의해 극심해진 내적 차별의 감정적 결과물이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일상화된 관습적 인식의 발현이다. 여성혐오의 형식을 취하지만, 탈국경의 일상화 경향을 염두에 두고 보자면, 여성혐오의 내부에는 계급적 차이와 인종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위계구조가 은폐되어 있다. 여성혐오로 표출된 사회문제는 젠더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며, 따라서 그에 대한 해법 혹은 대처는, 그 내부에 중층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계급적-인종적 위계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마련되기 어렵다. 포스트 민주화 시대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타자에 대한 통치술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 타자'들' 내부 차이의 봉합술에 대한 철저한 해부가 요청된다. 무엇보다 여성노동을 삭제하고 여성 내부의 차이를 모성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봉합하는 방식에 대한 철저한 해부 없이는 한국사회는 좀더 오랫동안 민주화의 역류 혹은 지체기에 머물러야 할지 모른다.

49) 김종엽 편, 『87년체제론』, 창비, 2009, 81-84쪽.

## 참고문헌

- 권금상,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주여성’ 재현의 사회적 의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6-2, 2013, 39-81쪽.
-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11.
- 금희,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 김동춘, 「조롱과 테러, 파리의 두 야만」, 『한겨레』 2015.1.21.
- 김려령, 『완득이』, 창비, 2008.
- 김민정, 「전성태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과 타자 인식 연구-디아스포라를 모티프로 한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1, 2015, 195-221쪽.
-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연구』 15-2, 2015, 279-317쪽.
- 김애란, 『비행운』, 문학과지성사, 2012.
- 김영옥 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김인경,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57, 2014, 267-293쪽.
- 김종엽 편, 『87년체제론』, 창비, 2009.
- 김지혜,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이중적 환대와 교육의 문제」, 『문학교육학』 44, 2014, 245-275쪽.
- 김현미·손승영, 「성별화된 시공간적 노동 개념과 한국 여성노동의 ‘유연화」, 『한국여성학』 19-2, 2003, 63-96쪽.
-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변역: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 또하나의문화, 2005.
- \_\_\_\_\_,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이동하는 여성들」, 『여성과평화』 5, 2010, 121-142쪽.
- \_\_\_\_\_,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4.
- 김홍미리, 「‘여성이 죽는다’ 호소에 “같이 문제 풀자” 응답해야」, 『한겨레』, 2016.5.21.
- 김효석, 「‘거울’의 서사와 ‘탈북’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문예운동』 105, 2010, 388-408쪽.
- 류진희, 「‘춧불 소녀’에서 ‘메갈리안’까지, 2000년대 여성혐오와 인종화를 둘러싸고」, 『사이間SAI』 19, 2015, 41-66쪽.
- 문강형준, 「‘묻지마 살인’이 아니다」, 『한겨레』, 2016.5.20.
- 박경용, 「한 조선족 여성의 가족사를 통해 본 디아스포라 경험과 생활사: 1932년생

- 박순옥의 삶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7-3, 2014, 1-36쪽.
- 박병률, 『남녀 임금격차,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경향신문』 2015.5.26.
- 박인규, 『주간프레시안뷰: 〈샤를리 에브도〉 테러, 웃는 자는 따로 있다』, 『프레시안』 2015.1.24.
- 백지연,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금희 『세상에 없는 나의 집』 해설, 창비, 2015, 273-289쪽.
- 서성란, 『쓰엉』, 산지니, 2016.
- 소영현, 『하위의 시간』, 문학동네, 2016.
- 손희정, 『우리 시대의 이방인 재현과 자유주의적 호모내셔널리티』, 『문화과학』 81, 2015, 364-386쪽.
- \_\_\_\_\_, 『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32, 2015, 12-42쪽.
- 신동일, 『외국인, 외국인 범죄,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 84, 2010, 275-300쪽.
- 연남경,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접경시대와 구성되는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2, 2013, 253-281쪽.
-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2000년대 탈북 소재 소설 연구』, 『문화과학』 10-1, 2011, 235-258쪽.
- \_\_\_\_\_, 『디아스포라의 플롯: 2000년대 소설에 형상화된 다문화 사회의 외국인 이주자』, 『시학과언어학』 17, 2009, 231-249쪽.
- 윤보라,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 2013, 33-56쪽.
- \_\_\_\_\_, 『온라인 페미니즘』, 『여성이론』 30, 2014, 166-180쪽.
- 윤보라 외,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 이명자, 『신자유주의 시대 남한영화에 재현된 탈북이주민과 그 문화적 함의』, 『통일문제연구』 25-2, 2013, 95-128쪽.
- 이미림,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우리문학연구』 35, 2012, 317-346쪽.
-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 38-2, 2004, 189-219쪽.
- 이주여성인권포럼,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오월의 봄, 2013.
- 이현주, 『한국 텔레비전의 결혼이주여성 재현에 관한 연구: 〈러브 인 아시아〉, 〈인간극장〉 내러티브 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임선일, 『에스니시티(ethnicity) 변형을 통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 연

- 구: 한국계와 비한국계 이주노동자의 사례 비교,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장미영, 『제의적 정체성과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언어문학』 68, 2009, 435-454쪽.
- 전성태, 『두번의 자화상』, 창비, 2015.
- 정인경,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연구』 16-1, 2016, 185-219쪽.
- 한희정,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 75, 2016, 43-79쪽.
- 허병식, 『200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와 정체성 정치 비판』, 『다문화와 평화』 6-1, 2012, 63-84쪽.
- 허재현, 『베트남인 ‘세월호유가족’ 판반짜이는 말한다』, 『한겨레』, 2014.12.27.
- 허정, 『전성태 소설에 나타난 단독성과 소통』, 『한국민족문화』 49, 2013, 187-228쪽.
- 황정아,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미리 온 통일”: 『로기완을 만났다』와 『옥화』를 중심으로』, 34-2, 2015, 47-69쪽.
-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 \_\_\_\_\_, 『감정의 격동』 1,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6.
- 사스키아 사센, 『축출 자본주의』, 박슬라 옮김, 글항아리, 2016.
-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김민철 옮김, 갈무리, 2011.
- \_\_\_\_\_, 『혁명의 영점』, 황성원 옮김, 갈무리, 2013.
- 이반 일리치, 『그림자 노동』, 노승영 옮김, 사월의책, 2015.
- 자크 데리다, 『불량배들』, 이경신 옮김, 휴머니스트, 2003.
- 주디스 버틀러, 『혐오 발언』, 유민석 옮김, 알렙, 2016.
-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이시스』, 최영석 옮김, 앨피, 2016.
- 한홍구·서경식·다카하시 데쓰야, 『후쿠시마 이후의 삶』, 이령경 책임 번역, 반비, 2013.
- 岡真理, 『제3세계 페미니즘과 서발턴』, 이재봉·佐伯勝弘 옮김, 『코기토』 73, 2013, 599-629쪽.
- \_\_\_\_\_,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이재봉·佐伯勝弘 옮김, 현암사, 2016.
- 師岡康子, 『증오하는 입』, 조승미·이혜진 옮김, 오월의봄, 2015.
- 上野千鶴子,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 伊藤守, 『정동의 힘』, 김미정 옮김, 갈무리, 2015.



## Abstract

Women/Hatred(Misogyny) as a Symptom and the Geometry of  
Diaspora Gender  
- feminization of migration, housewification of immigrant labor

So, Young-Hyun(Yonsei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cross-border immigration rampant in Korean society, link the diasporato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and Korea, macro/micro viewpoint Migration across the border is an unavoidable phenomenon due to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characterized by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In Korea, immigrant bodies have in Korean society one of the reasons why social position unstable and vulnerable. The social position of immigrant women even worse in society, hatred is a social emotion hierarchy of clas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hatred is usually expressed in a routine and unconscious manner the manifestation of structural and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against social others in society. Kumhee's novel "Okwha" "Nomad" and Korean film "Missing", that racial hatred is hidden as a technique for social unrest.

(Key Words: diaspora, emotion, hatred, misogyny, gender, migration, migrant labor, housewification, sisterhood)

논문투고일 : 2017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5월 2일

수정완료일 : 2017년 5월 9일

게재확정일 : 2017년 5월 12일